

# ‘유가폭탄’ 비상등 켜진 가계

## 휘발유값 14주연속 올라 사상최고치 육박

## 석유 경보지수도 8개월만에 ‘경계’로 격상

기름값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국내 주유업 유종인 중등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6달러를 재돌파한 데 이어 휘발유 가격은 14주 연속 오르는 사상 최고치에 8월 10원 차이까지 접근,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 이 가중된 유류대 부담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원유가격 등 각종 국제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던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경계’로 격상됐다.

◇휘발유 사상최고가 육박=정부와 석유공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유가 전문가회의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당초 배럴당 55~60달러선이었던 2·4분기 유가 전망치(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60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상황 조정했다.

하지만 현재 유가의 움직임을 볼 때 이 전망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월과 5월(18일까지)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이미 각각 배럴당 63.98달러, 63.89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를 표본조사한 5월 셋째주 무연 보통 휘



발유가격은 14주 연속 오르며 8월 1천538.20원으로 집계됐다.

2월 첫째주 1천394.18원에서 4개월이 채 못되는 동안 10.3%나 급등했다.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해 8월 셋째주의 8월 1천548.01원까지 불과 9.

81원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다.

◇조기경보 8개월만에 ‘경계’=기름값 급등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와 석유공사가 작성하는 석유 조기경보지수(EWS)가 4월말 기준 3.54로 전월말보다 0.05가 더 상승하며 8개월만에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원유값 외에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장·단기 이자율 등 20여개 변수로 구성된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는 ▲정상(1.5미만) ▲관심(1.5~2.5미만) ▲주의(2.5~3.5미만) ▲경계(3.5~4.5미만) ▲심각(4.5 이상) 등 5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다.

기름값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정작 당국의 경보발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한국인 평균 수명 78.5세

## 세계 194개국 중 26위 ‘장수국’ ... 선진국 수준 진입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 발표한 ‘세계 보건 통계 2007’에 따르면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5세로 전 세계 194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5세이며 여성은 82세로 나타났다.

2004년과 2003년 통계에서는 각각 77세와 75.5세였음을 감안하면 평균 수명이 해마다 1.5세씩 늘어난 것으로 이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평균 66.5세(남자 65세, 여자 68세)로 조사됐다. 남자를 합한 평균 수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이 82.5세로 1위를 기록해 최장수국의 지위를 굳게 지켰다.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였다.

일본 다음으로는 호주·모나코·스위스가 각 81.5세로 그 뒤를 이었고, 아이슬란드·이탈리아·산마

리노·스웨덴이 각 81세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7.5세(남자 75세, 여자 80세)로 중위권으로 처졌다.

올해 보고서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34개국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82.5세)과 싱가포르(80세) 2개국만 우리나라에 비해 남자의 평균 수명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국(72.5세) 베트남(71.5세) 인도네시아(67.5세) 필리핀(67.5세) 몽골(65.5세) 인도(63세) 등이었다.

/연합뉴스

# 보리수매 2012년 폐지

## 농림부 ‘보리수급 대책’

정부의 보리 매입 가격이 점점적으로 낮아져 오는 2012년에는 매입 자체가 중단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 이력 내용의 ‘보리수급 안전대책’을 올려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매입가를 해마다 2~6%씩 내리고 수매량도 10~20%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겉보리 매입가격은 지난해 3만1천490원(40kg)에서 2011년 2만7천600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이 시점에 매입가가 시장가격과 거의 같아지는 한편 보리의 수급 균형도 어느정도 맞춰질 것으로 보고, 2012년부터는 정부 매입 없이

보리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최도일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20만톤이 넘는 보리 재고를 낮추는 가격에 주정용 등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들이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시장 가격과 수급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012년에는 정부가 더 이상 보리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보리 등에 대한 정부의 추곡수매제도는 이미 폐지됐지만, 정부는 현재 해마다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사주고 있다.

/연합뉴스

## 매운맛·숙성도

## 등급별로 나눠

## 김치 품질표시

“이 김치는 ‘보통 매운맛’에 ‘과숙’ 상태입니다.” 앞으로 김치 제품에 이같은 품질표시가 붙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0일 전통식품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김치의 매운맛과 숙성도를 나타내는 표준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매운맛은 캡사이신과 스코빌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순한-약간매운-보통매운-매운-대단히매운 등 5등급으로 구분되고, 익은 정도는 pH 수치 등으로 산도를 측정해 미숙성-적당히숙성-과숙 등 3단계로 나뉜다.

이번 지표 개발에는 488명의 패널이 참가, 직접 김치의 맛을 보며 등급 판정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표를 활용하면 어린이, 학생, 환자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김치를 공급할 수 있고, 김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감기약 판매량 제한한다

## 히로뵁 제조 사건 재발방지

일부 감기약을 이용해 히로뵁을 만든 사건의 불똥이 감기약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의약품 감독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20일 제약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최근 시판 감기약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 히로뵁을 제조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의 판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테면 약국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을 1통(3~4일 분량) 또는 2통으로 한정하고, 약사는 반드시 판매기록부에 이를 기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당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약품 당국은 문제의 감기약을 일반약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 비용 부담과 불만이 너무 가중된다는 지적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전업주부 연봉은 2,500만원”

국내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연봉으로 따질 경우 대략 2천5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삼성증권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내놓은 자료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의 연봉은 2천100만~2천

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교통사고 주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특별인부’에 준하는 일당을 적용토록 한 사실을 토대로 연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분단 후 첫 부산 남외항 도착 北 강성호 북한 화물선 강성호 (1천853t)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20일 부산 남외항에 도착했다. 선원 27명을 태우고 지난 18일 남포항을 출발한 강성호는 앞으로 매달 3차례 남북항을 왕래한다.

/연합뉴스

# 전남 쌀 해외시장 ‘노크’

## 5개 업체 수출 추진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해 한국 쌀산업을 대표하는 전남이 해외 쌀시장 진출을 노크한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막아왔던 쌀 수출을 승인함에 따라 친환경쌀의 메카로 최고 미질을 자랑하는 전남쌀 수출 길을 트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가 지난 16일까지 친환경쌀 및 브랜드쌀 중심으로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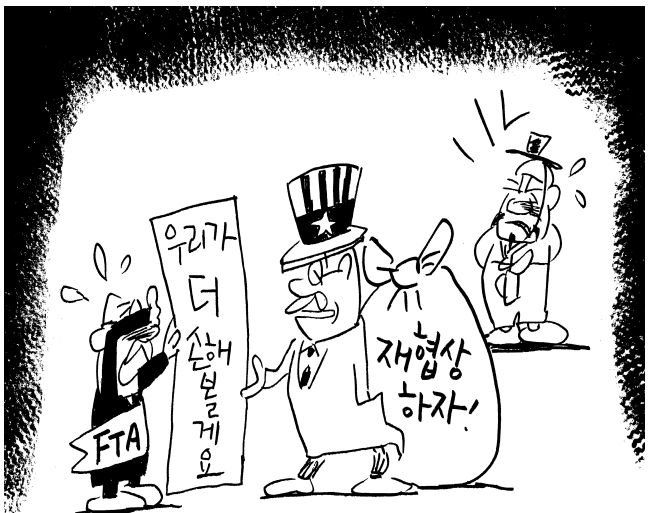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의 의향을 밝혔다. 쌀 수출 희망업체는 목포 이천산업, 나주 동강농협, 장흥물산, 영암 율출산농협, 무안 몽탄 친환경작목반 등이다.

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도청 서재 필실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수출방안을 협의한다. 이와함께 도는 오사카, 상하이, 뉴욕 등 해외통상사무소 및 교포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해 해외 쌀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차라리 항복문서를 달라고 해라!

###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 직 통: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입·모임  
사실금융·매매·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상속한정승인공고

공고인은 망 김성규(570221-1559826, 2007. 1. 19. 사망, 최후주소: 광주시 북구 운암동 445-24)의 상속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 반상속재판자와 유증 받은 자는 공고기일 내에 그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일 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년 단 549

공 고 인: 양말녀(전북 김제시 옥산동 408)  
한정승인수리일: 2007. 5. 10  
공고기간: 2007. 5. 21 ~ 2007. 7. 23  
연 락 처: 광주시 북구 운암동 477-7 양말녀 (063-544-1076)  
제미숙 (영광여대부: 018-790-5408)

###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07년 4월 13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007년 6월 2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5월 21일

근세유통생활관리 주식회사  
광주시 동구 대의동 32 2층  
정산인 정 응 주

### 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열람 공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2007년 5월 22일(화) 15:00  
• 장 소: 청소년수련관 3층 영화관(양동소계)  
• 내 용: 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내용 설명

○ 열람 장소  
• 기 간: 2007년 5월 21일 ~ 6월 3일(14일간)  
• 장 소: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uncheon.go.kr)  
- 읍·면·동사무소  
- 순천시 교통과(749-3366)  
• 열람내용: 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내용

○ 의견제출  
• 기 간: 2007년 5월 21일 ~ 6월 3일  
• 제출사항: 시민편의와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 제 출 자: 시민 누구나 가능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팩스  
순천시 교통과(전화 749-3366, 팩스 749-3591)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순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 의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 여부 통지

2007년 5월 21일  
순 천 시 장

###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광주일보는 애독자 여러분께 매주 10명을 추첨해 영화표 2장씩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은 광주일보 광고면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능률협회선정 3년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1위 여행사는?  
①하나로투어 ②하나투어 ③하니투어

★타이밍: 매주(월~토) 발행된 신문 광고에서 힌트를 얻어 정답을 표시 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광고국 퀴즈담당자 앞

★문의전화: 062)220-0521

“광고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 2008학년도 수도권 주요대학 공동 입시설명회

꿈을 위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간! 수도권 주요 14개 대학이 함께하는  
공동 입시설명회를 통해 길을 열어가십시오

## 광주지역 입시설명회

일 자	장 소	시 간	참 여 대 학	비 고
5.26(토)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오 전(10:00~12:20)	가천의과대학, 강남대, 건국대, 경원대, 경희대, 덕성여자대, 동국대.	설명 후 대학별 상담 청구
		오 후(14:00~16:20)	서울시립대, 서울여자대, 성결대, 숭실대, 인하대, 홍익대, 아주대	운영

### 서울경인지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